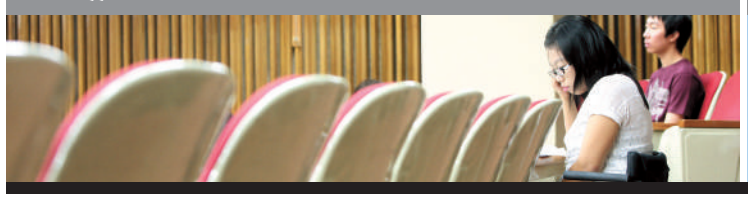
제 1598호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media.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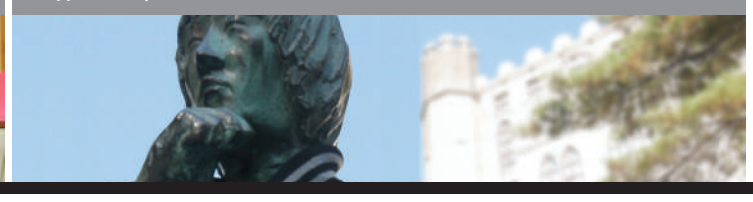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4~5≫ 길게 읽기 – 장애학생 학습권



8≫ 과잠, 왜 입니?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개설과목 확인 : 11월 2일(월)
수강신청기간 : 12월 14일(월) 10:30~12월 15일(화)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12월 16일(수)~12월 18일(금) 16:00
수업기간 : 2015년 12월 16일(수)~2016년 1월 14일(목)

교육여건 23위, 주요 대학과 격차 더 커져

강의규모·전임교원 강의비율·세입 중 납입금 비중 40위 밖

해설 -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고상아 기자 ddang_ah@khu.ac.kr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를 두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포스텍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계열별 평가로 제외됐음에도 종합순위가 두 계단 떨어진 것은 물론 서울시립대와 '분교'로 인식되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그간 분리평가를 받아온 중앙대학교가 서울과 안성캠퍼스를 통합해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들 대학에 밀리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당혹감'은 이유 있는 반응이다.

대학은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긴급 교무위원회가 열리는가 하면 지난달 27일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교무위원회에서도 평가결과는 회의시간 내내 주된 의제였다는 것이 참석자의 전언이다. 이날 교무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된 듯하다. 4개 부문별 지표 점수의 개선을 통해 종합대학 5위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대강의 계획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신문은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가 함의하는 것을 살펴본다.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평가' 그 자체가 현존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적지 않기에 결과를 통해 드러난 우리대학의 현실을 살펴보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앙일보는 이번 대학평가부터 재원 투자를 통해 지표 점수를 올리기 쉽다고 지적돼오던 '국제화' 부문을 축소·폐지하고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 부문으로 변경했다. 또한 질적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역시 새로 도입했다. 교육여건 부문에서는 강의규모·기숙사수용률 등을 새로 도입해 학생들이 직접 체감하는 지표를 추가했고, 계열 간 교수업적을 동일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을 분리 평가하기 시작했다. 우리학교는 부문별로 교육여건 23위, 교수연구 9위, 평판도 10위,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 15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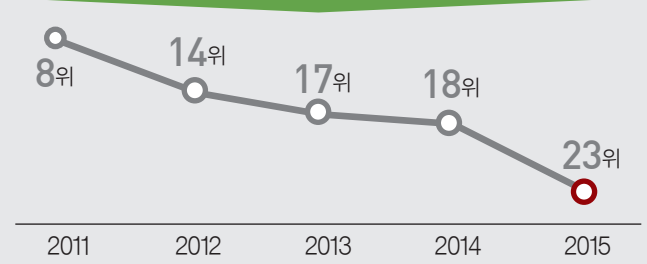
교육여건 지표 하락 가장 큰 '고민'거리

교육여건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최하위인 23위를 기록한 것이 가장 눈길이 간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부문과 지표가 변화되면서 교육여건은 지난해 부문 배점 90점(30.0%)에서 올해 150점(37.5%, 종합점수는 2014년 300점 → 2015 400점으로 변경)으로 확대돼 교수연구 27.5%, 평판도 15.0%, 교육노력 및 성과 20.0%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부문에서 취약한 우리대학으로서는 종합 순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교육여건은 이미 구성원으로부터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왔던 부문이기도 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구성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외부 평가 역시 교육 환경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그동안 교수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는 대학의 정책 역시 전환의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6면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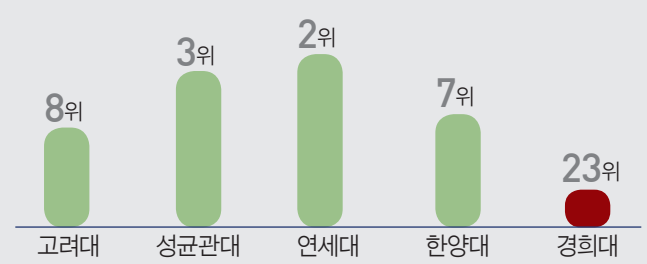
5년간 교육여건 순위 추이



교육여건 상세지표 현황

세부지표	점수(배점)	상세지표	순위
교수확보율	15.1(20)	93.07%	11위
기숙사 수용률	5.8(10)	19.66%	27위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	2.8(5)	13만 9천원	21위
세입 중 납입금 비중	5.3(15)	57.29%	40위 밖
세입 중 기부금	2.7(5)	3.22%	13위
외국인 교수 비율	5.3(10)	10%	32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10.8(20)	20.86%	26위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5.5(15)	187.12%	36위
강의규모	0.3(10)	0.29점	40위 밖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0.3(5)	0.49%	40위 밖
외부 경력 교원 비율	0.6(5)	25.55점	40위 밖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6.5(8)	8.37%	5위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3.7(7)	1.598점	34위
교환 학생 비율	9.2(15)	7.11%	13위

주요 대학 교육여건 순위 비교



주요 대학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 비교

- 경희대 12시간
- 성균관대 - 15시간 학부 9시간 의무강의, 학기 3시간 의무강의
- 고려대 12시간
- 한양대 - 15시간 학부 1강좌 의무강의, 주당 6시간 의무강의
- 서울대 18시간
- 연세대 12시간
- 중앙대 12~15시간

하나의 경희로 가는길② 입학으로 본 경희 - 3면

Newsmaker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성명 발표한
박윤재 사학과 학과장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

이승연 기자 leesy0177@khu.ac.kr

#.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검정교과서 체제로 편찬되고 있는 기존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2017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은 지난달 14일 성명서를 통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다. 성명에 참여한 우리학교 사학과 박윤재 학과장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와 집필거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A. 지난달 5일 이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경희대학교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학내 반대 여론 확산/대학주보 온라인 2015.10.13〉 그 성명서의 연장선에서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을 한 것이다. '집필거부'란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참여를 요청할 경우 그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Q. 성명서에서 '사실에 기초한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향하는 연구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체제 하에선 이러한 연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A. 현재 검인정 교과서에 비해, 편찬 주체가 교육부인 국정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Q. 학계가 '그러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교육부가 발간 주체라는 점, 나아가 단 한 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역사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은 국정교과서에 나온 서술을 정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란 사실과 해석 사이의 대화 혹은 긴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정교과서란 그 대화 혹은 긴장의 여지를 축소시킨다. 궁극적으로 역사를 '왜소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Q.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검정교과서 좌편향을 지적하며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A. 검정교과서란 교육부가 제시한 검정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다. 현재 국사교과서는 지난 2013년에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이다. 즉,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다. 자신들이 인정한 교과서를 이제와서 좌편향이라 비판한다면, 자가당착이다. 그럼에도 새롭게 국정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이유는 기존 교과서의 편향성을 빌미로 자신들이 원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Q.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 시행 의지를 비쳤다. 향후 국정교과서의 행방을 어떻게 보고 있나?

A. 12월 2일 국정교과서 시행이 결정될 것 같다. 학계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시민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학계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면, 우리학교 역사 학자분들이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 현 시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선 계속 고민 중이다.

Q. 국정교과서 도입이 결정된 현 시점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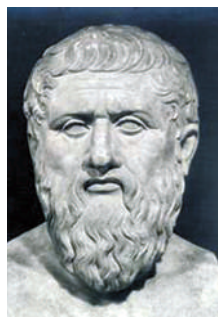
A.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하나의 정답을 외워서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다. 여러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자신의 시각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황금률: 정의와 사랑의 원리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⑤

최인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매우 오래 전부터 수많은 종교 및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왔다.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남들이 해서 네가 비난할 행동은 너도 하지 마라'고 말했으며, 공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곧 인'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불교에는 '자신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마라', 이슬람교에는 '자기 자신에게 소원하는 바를 형제에게도 소원하기 전까지는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황금률은 시대와 지역, 문화와 종교까지도 모두 초월한 보편적 행동원리인 것이다. 동서고금의 이 모든 황금률들은 단 한가지 공통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 혹은 바라지 않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같은 것이라는 지혜이다.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언제나 좋은 것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언제나 좋은 것이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황금률에 의하면, 우리는 남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소망이 곧 타인에 대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비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어떤 힘이, 어떤 원리가 나와 타인 사이를 훌쩍 뛰어넘게 하는 것일까?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역사,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재 진행형 학문
서상훈 (문화평론가) ≫7면

시선

사설

예상 밖의 대학평가 결과,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지난 10월 6일, 구성원에게는 대학 명의로 된 한 통의 이메일이 배포됐다. THE세계대학평가 결과에서 우리대학이 국내 대학 6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달리, 중앙일보 대학평가결과가 발표된 지 2주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대학에서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학평가'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외견상 드러나는 '순위' 부분에서 경쟁대학의 분교 캠퍼스에도 밀리는 예상 밖의 결과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대학평가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순위가 아닌 지표이고, 평가결과는 곧 현재 우리학교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가늠자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다.

그렇다면, 대학은 평가의 순위가 어떻든 드러난 지표 속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학의 입장과 향후 운영방안 및 비전을 구성원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 이런 설명이 선행되어야 그 이후로 구성원 간에 학내의 다양한 지표 현황을 둘러싼 건전한 논의와 토의가 이어져 조직 건전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대학 11위라는 '수치의 충격' 앞에 이 모든 흐름이 정지돼버린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 대학은 교수의회나 직원노조에서도 덩달아 유구무언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 역시 드러난 지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하기 보다는 '대학평가 거부'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캠퍼스 바깥'으로의 움직임만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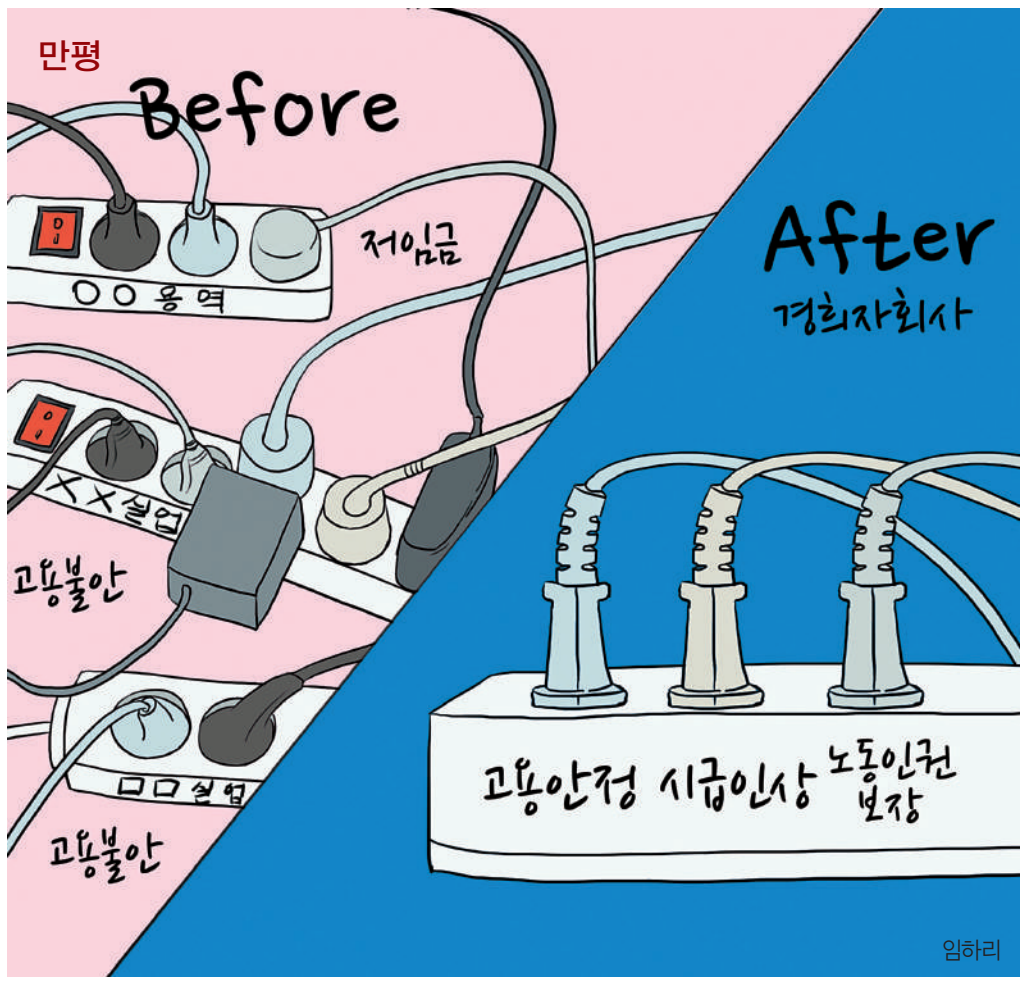
하지만 각종 대학평가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상이한 이해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맞부딪히며 제기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이 학교를 위한 건강한 에너지로 모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것을 주도해야 하는 것은 명백히 대학이다. 대학평가의 의제와 관련하여 모든 정책적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해야 할 대학이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인해 구성원 사이에서도 아무런 의견의 응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상황인 것이다.

사실 그동안 대학은 대학평가와 연계되는 학내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구성원 앞에 털어놓고 토론을 열거나 조언을 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결과 '교육여건 향상'을 요구하는 구성원의 목소리와는 달리 학교 정책은 교수·연구 부문에 치중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그리고 이제 다시 대학은 중앙일보 대학평가로 드러난 결과 값을 갖고 대안적 움직임을 도모해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과의 긴밀한 소통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체 구성원과 함께 우리대학이 지닌 약한 부분들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소통의 바탕 위에 세워진 정책은 구조적으로 견실하기 마련이다. 이번 대학평가 결과를 그 시작으로 삼기 위해, 지금은 우리학교의 현황과 현실에 대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을 때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학내 청소노동자 직고용

노동자들의 일터는 바로 여기, 경희대학교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지난달 5일 제4회 사다리포럼에서 우리학교와 희망제작소가 청소노동자 직고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학교법인에서 자회사를 설립,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경희모델'을 세우고, 2017년부터 청소노동자를 직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희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그동안 용역관행으로 몸살을 앓던 대학가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직접 고용을 학교로부터 다짐받기까지 청소 노동자들은 쉽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왔다. 2013년 11월 18일 용역업체와의 첫 단체협상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측은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을 시도했다. 하지만 2014년 1월까지 이어진 여덟 차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됐고 용역업체 측에서는 기존 시급인 5,700원에서 겨우 100원 만을 인상해준다는 말만을 남기고 귀를 닫았다. 결국 서경지부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지난해 3월 개강과 동시에 본관을 메웠던 노동자들의 외침의 배경이다. 이런 지난한 과정끝에 청소노동자의 월급은 87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오르고, 1년에 30건이었던 용역업체의 해고 건수도 약 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노동자 측과 용역업체 간의 불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은 청소노동자가 용역으로 변경된 이래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로 남아있다. 때문에 매년 6개월을 훌쩍 넘겼던 단체협상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은 피곤함과 두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경희모델은 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부당지시나 잘못된 노동관행을 뿌리 뽑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직고용의 걸림돌이었던 '재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용역화한 이유도, 이후에 청소노동자들의 직고용 요구에 난색을 표한 근거도 모두 '재정부담'이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히 대학 재정에서 특별한 수익원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부담이 청소노동자 직고용으로 과연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런 부담을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없이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이밖에도 청소노동자 대다수가 고령인 점도 고민해봐야 하고, 현재의 청소노동자 인력이 캠퍼스를 모두 관리하는데 충분한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경희모델이 진정으로 박수받기 위해선 남은 기간 동안 짚어 봐야할 점이 이처럼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걸어본다. '청소노동자'의 일터가 바로 이곳, 경희대이고 그들 역시 구성원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경희모델이 구현하기를.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요즘에도 그렇다

세시봉

박기윤 〈파트장〉

'양약고구 충언역이(良藥苦口 忠言逆耳)'라고 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의미다. 이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특히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금언이다.

하루에만도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모든 정보를 일일이 신경 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사건들에 먼저 시선을 던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들일수록 지루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해석을 위해 전문 용어나 수치, 맥락, 적확한 독법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회성 가십 뉴스에 비해 확연히 '재미없는' 이런 정보를 무심하게 지나치곤 한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국방예산처럼 수십 조 원을 넘나드는 큰 규모의 사업에서부터 공기업 사장의 운전기사 월급과 같은 상대적으로 소소한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의 전 방위적인 분야에 걸쳐 감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정감사라는 것을 진행하나 보군' 정도의 관심만 있을 뿐,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실정이다. 심지어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자극적이고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이슈만을 다루고 싶어 한다. 정작 국민의 삶에 밀접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져 간다.

국정교과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일부 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뿐이다. 아마 국정이니 검정이니 인정이니 하는 개념이나 '국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세계적 맥락이 이 사안에 대해 자기 의견을 갖는 데 진입장벽이 되었을 것이다.

'재미없지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은 학내에도 쌓여있다. 학생회 자치회비 사용내역 공개 여부에 대한 문제, 대학구조개혁이나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같은 문제 등 대학의 교육여건이나 학습편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사안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순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우리학교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지루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을 들여 알아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뿐더러, 이런 이슈보다는 당장의 내 학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루함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재미없고 지루할지라도 의미 있는 이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때 반납 안 되는 도서관 전공서적에 구성원 불만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0. 19 ~ 10. 30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종이접기 아저씨'로 유명한 종이문화재단 김영만 평생교육원장의 '힘내라, 코딱지!' 토크 콘서트가 지난 27일 서울캠퍼스(서울캠)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열렸다.('종이접기 아저씨'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대학주보 온라인, 2015.10.28) 토크 콘서트는 가을대동제의 일환으로 서울캠 총학생회가 주최했다. 김 원장은 늦은 나이에 종이접기를 시작한 이후 총 3번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한다. 첫 번째 '기회'는 사립초교에서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두 번째는 그의 종이접기 수업이 화제가 돼 'TV유치원 하나 둘 셋'으로 방송활동을 하게 된 것이며, 세 번째가 바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 출연이었다. 김 원장은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게 '실'일 수도 '밧줄'일 수도 '기둥'일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일단 잡아야한다. 튼튼한 기둥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건 늙음이다. 젊은이라면 과감히 실도 잡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전공도서 반납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실태에 대한 불만 글(#경희숲_11409, 2015.10.26)이 인기를 끌었다. 글쓴이는 '전공서적 대출일이 9월 25일인데 아직도 반납을 안 한 사람이 있다. 학기 내내 연체료 내고 도서관 책을 혼자 보겠다는 심보인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글에는 '좋아요' 24개가 눌렸다. 댓글로는 '가끔 수업시간에 보면 도서관 책에 밑줄 긋고 필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나', '전공서적을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복리 등비수열로 매기자'라는 내용이 있었다.

취업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글(#경희숲_11437, 2015.10.29)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글쓴이는 '상반기에 서류를 30개 썼는데 딱 하나 통과됐고, 그마저도 인적성에서 떨어졌다'며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더 대단한 사람이 많은가보다. 동기들은 대기업도 잘만 가던데 나는 왜 제자리걸음일까. 서류조차 붙지 않으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187개의 '좋아요'를 기록한 이 글에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힘냅시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장익경(의학 73) 동문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장익경 동문, 하버드의대 정교수 이어 석좌교수 임명/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10.29)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겸 우리학교 석좌교수인 장 동문은 1983년부터 심근경색증과 같은 급성관동맥증후군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심근경색 발생을 약물치료로 줄일 수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장 동문은 1980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교환학생으로 간 벨기에 루벤대에서 7년 간 심장내과를 전공했다. 이후 1987년부터 현재까지 매사추세츠 제너럴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서울시 교육청·대형 입시포털, 국제캠 사실상 '분교 표기'

입학처, "유사학과·불분명한 학과분류 문제로 공격적 홍보 어렵다"

하나의 경희 #2 - '입학'으로 본 경희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서울시 교육청과 대형 입시포털 대다수가 국제캠퍼스(국제캠)를 서울캠퍼스(서울캠)와 분리 표기하고 사실상 '분교 표기'를 명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대형 입시포털 사이트(대성 마이맥, 종로 e-class, 중앙 uway교육, 진학사, 이투스, 메가스터디, 비타에듀, 대학인)의 입시자료는 8곳 중 2곳만이 양 캠퍼스를 하나의 '경희대'로 명시한 상태다. 이 외 6개 사 모두 '대학 입시정보 공시', '모의 지원' 등 자사의 모든 콘텐츠에 우리학교를 '경희대 - 경희대(국제)' 로 분리 표기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 고등학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정보연구원 발간 '2015 대입 진학지도 길잡이(2014.11.27. 발간)'마저도 위 포털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학교의 명칭·정보를 분리 표기했다.

법적 분교만 캠퍼스 분리 표기 성균관대는 단일표기하고 있어

이 같은 표기방식은 소재지가 서울인 학교 명칭을 단독 기재한 채, 다른 한 쪽에는 '지방캠퍼스 명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고려대 - 고려대(세종)', '건국대 - 건국대(글로컬)' 등 타교의 법적 분교들과 동일한 표기방식이라 자칫 입학을 고려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각 대학의 캠퍼스들이 지방 명칭을 떼고 '글로벌 캠퍼스', '글로컬 캠퍼스' 등으로 이름을 변경해 오고 있어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성균관대는 위 표기가 모두 단일명칭으로 통일돼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입시정보 표기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경기도 영덕고등학교 진학진로부 측은 "교육청 등 공적 자료를 포함, 대형 학원가·입시포털의 프로그램 2~3개를 활용해 학생들을 지도한다"며 "현재 진학지도를 진행하는 대다수 고교들이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된다"고 현재의 진학지도 방식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대해 동대문구 A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는 "서울시내 고등학교들은 교육청 자료 50%, 사설학원 자료 50%를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 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6년간 사설학원에서 고교 입시진학을 지도해 온 김민정 전 EBS 강사는 "일선 학원 강사에게는 당연히 일반 고교 교사처럼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강사 대부분이 대형 입시포털의 정보에 의존하는 형태다"라고 말했다. 연간 사교육비 규모만 약 18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이 같은 상황은 우리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입시포털의 정보 중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는 단연 대학별 점수를 표기하는 '배치표'다. '대학의 서열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이들의 실질적인 파급력은 매우 크다. 한양대 등 일부 사립대는 과거 학원 측에 적극 항의하며 소송까지 불사했던 이력도 있다. 반면 우리학교의 '배치표 성적'은 전반적으로 실제 입학성적보다 낮게 표기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양 캠퍼스의 '분리 표기' 문제가 겹치면서 오히려 재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인식개선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한범희(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1) 군은 "우리학교는 이런 사설학원의 표시들이 대외적 이미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며 "공식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입학처 측은 "일부 입시학원의 배치표 성적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시학원들이 자체 계산식을 통해 성적을 내는 만큼 우리의 실제 성적대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분리 표기'에 대해선 입학처 측은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입학처 측은 "고교 연계 프로그램, 입시자료 발간 통일 등 이원화 캠퍼스 홍보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2014년엔 입시포털 측에 공문을 보내 분리 표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입시정보 업체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중앙 uway교육 콘텐츠사업팀 이승혁 차장은 "실제로 지난해 초에 경희대 측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통합했었다"며 "하지만 경희대는 캠퍼스별로 문·이과가 혼재되어 있고, 통합 표기시 유사 학과의 명칭에 혼란이 있어 학부모·진학지도 교사로부터 항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통합표기를 5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이내 폐기했다.

서울	가	자연	경희대	간호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2	합격진단
서울	가	자연	경희대	물리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495	합격진단
서울	가	자연	경희대	생물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3	합격진단
서울	가	자연	경희대	수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2	합격진단
서울	가	자연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499	합격진단
경기	나	자연	경희대국제	유전공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0	합격진단
경기	나	자연	경희대국제	응용물리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489	합격진단
경기	나	자연	경희대국제	응용수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1	합격진단
경기	나	자연	경희대국제	응용화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2	합격진단
경기	나	자연	경희대국제	전자전파공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498	합격진단

◀ 중앙uway교육 입시정보 공시의 일부. 위 회사는 우리학교의 공문을 받고 지난해 초 표기의 통합을 시도했다가 유사 학과명, 캠퍼스별 문이과 혼재로 인한 입시혼란 등을 이유로 다시 분리했다.

대학측 배치표 분리 표기 시정 요구 입시정보업체 '혼란' 항의로 난색

'대외적 인식'의 문제는 사실 우리학교 입학처의 오랜 고민이기도 하다. 국제캠 입학처 김진상(전자·전파공학) 입학처장은 "입학처는 학교의 '통합'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다"라며 "하지만 유사학과 문제 등 '불완전한 통합'으로 인해 우리도 '공격적 홍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입학처는 그간 입학생들의 성적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오다가 작년 입시부터 최저학력제도를 통일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김 처장은 "내부 분석결과, 사실상 외국어대학을 제외하고는 국제캠 전체가 서울캠과 동일한 성적대의 한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며 "때문에 최저학력제도, 입시요강 통합과 순서 변경 등 여러 가지를 통일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이원화'로 인한 분리 표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입학처가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우리학교 같은 상황에서 프라임 사업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덧붙였다.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발표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방안' 시안에 따른 사업으로 지난달 21일과 27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일각에서는 취업에 목매는 구조개편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나, 우리학교의 경우 캠퍼스 통합관련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 또한 공존한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사구조·제도 개편', '캠퍼스 간 정원 조정 유도', '학과 통폐합·학과간 정원 교환', '학문간 융복합', '학과제의 학부제로 전환을 통한 다중·연계전공의 유도' 등이 있다. 대학본부 측은 프라임 사업과 더불어 '일의 순서'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미래정책원 신상협 원장은 "프라임 사업이든, 유사학과 문제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임 사업 기회로 삼는다"지만 구체적 계획 수립은 미비한 상태

하지만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우지연 팀장은 "아직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화 된 계획은 없다"며 "유사학과 문제·계열 조정 문제 또한 고려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입학처 측 역시 "대외협력처와 협력해 인식개선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전했지만 아직 가시화된 사항은 없다. 이처럼 대학본부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오는 12일 치러지는 '수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도 '하나의 경희'는 두 개의 대학으로 배치표와 고교교사의 지도 속에서 남을 전망이다.

2015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6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7회 째를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접수일시	2015년 10월 15일(목) ~ 11월 17일(화) 17:00
대상	교수, 교직원
시상분야	교육, 연구, 실천 (3개 부문)
시상인원	분야별 약간 명
추천방법	1. 방문 :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홍보실 2.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홍보실 3. E-mail : pr@khu.ac.kr
선정절차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수여식	2015년 12월 中 〈Magnolia 2015-1부 목련회의〉시 시상
문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3~6

대외협력처

2015 하반기 분야별 취업특강 일정표

구분	과목명	교수명	특강 제목	일시	장소
月	면접정보와 프리젠테이션 스킬	박창욱	1. (9/21) 통념을 넘는 취업전략 2. (10/5) 취업심리학-나와 면접관의 심리 3. (11/2) 해외취업과 대우의 Global YBM 4. (12/7) 방학의 의미와 취업(전략적 이용)	월 12:00 ~ 14:00	청운관 B117호
火	역량개발 전략론	이정호	1. (9/8)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핵심역량 2. (10/13) 조직이해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3. (11/10) 성공적인 면접전략 4. (12/8) 외국계 기업 취업 전략	화 12:00 ~ 14:00	청운관 B117호
水	취업논술과 기획서작성법	배상복	1. (9/16)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1 2. (10/21)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2(자소서 합격,불합격 사례 분석) 3. (11/18) 취업 논술 작성법 1 4. (12/16) 취업 논술 작성법 2	수 13:00 ~ 15:00	청운관 B117호
水	금융권 취업실무론	송승영	1. (9/16) 금융권 취업상담 2. (9/30) 금융권 취업상담 3. (10/7) 금융권 취업상담 4. (10/28) 금융권 취업상담 5. (11/11) 금융권 취업상담 6. (11/18) 금융권 취업상담	수 17:00 ~ 18:00	네오관 104호
木	직무적성검사 분석 및 연구	안진성 양광모	1. (9/10) 대기업 직무적성검사의 주요 출제영역 및 대응방안 연구 (양광모) 2. (9/24) 수리1(응용수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안진성) 3. (10/8) 상식(경제,경영,시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양광모) 4. (10/22) 공간지각력(시각적사고력)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곽인경) 5. (11/5) 추리(논리, 판단, 명제)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김익중) 6. (11/19) 수리2(도표데이터처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안진성) 7. (12/3) 상식2(한국사 및 역사에세이) 대기업 출제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양광모) 8. (12/17) 수리3(도식, 수열추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안진성)	목 15:00 ~ 17:00	네오관 103호
金	외국계기업 취업총론	전은명	1. (9/18) 외국계기업 취업 프로세스 2. (10/16)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3. (11/20) 영어면접 요령 4. (12/18) 모의면접 실시	금 17:30 ~ 19:30	청운관 B117호

※ 12월 특강 장소는 추후 재공지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5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 1,2,3"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학년도 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학기 이전	2013-1학기부터
취득요건	- 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재,휴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인정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능 ① 교외봉사 :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www.vms.or.kr)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 (단, 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협의 되어야 함) 를 실시한 경우 ③ 헌혈 :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헌혈증서 원본을 기증한 경우 (헌혈증서 원본 이외 다른 서류 제출 불가)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5-2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5년 11월 2일(월) ~ 2015년 11월 27일(금)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 실적등록 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3. 소감문	-

-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회봉사 관련 기타 상세사항은 공식홈페이지 http://www.khu.ac.kr - [공지사항] - [일반] 에서 확인

●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같은 날 실시한 헌혈+봉사활동 실적 제출할 경우도 적용)
나. 헌혈증서 기증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헌혈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2.28 이전	2006. 3. 1~2011. 2.28	2011. 3. 1 이후
헌혈증 1장 당 인정시간	15	8	4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기획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이젠 '학습자

길게 읽기 – 장애학생 학습권 살펴보기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헌법 제31조 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은 국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는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이 조항의 적용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와 대학은 지난 1990년대부터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비를 갖춰왔다. 1995년부터 대학입시전형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신설되었고,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따른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캠퍼스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와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2000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특별전형을 실시한 전국 4년제 대학 30개교에 등록한 장애학생(974명) 중 177명(18.2%)이 학사경고를 받았고 52명(5.3%)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학생의 학습편의성 문제가 비단 개개인의 차원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암시한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이후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3조 2항'에 의거해 각 대학들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교수·학습·시설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 평가 덕분에 각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결과 이제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최소한의 보장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학교도 이러한 흐름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래서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우리학교의 장애학생들 역시 학교 측의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한 만족감을 내비친다. 시각장애 3급인 서울캠퍼스의 A 학생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내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어 별다른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다"면서 "확대경이 있어야 글자가 보이는 상태인데 도서관에도 확대경이 비치돼있고,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요청하는 교재의 일부분을 음성파일로 변환해주기도 해서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등과 연계해 장애학생을 위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 전용 열람실을 마련하고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높낮이 조절 가능 책상을 설치해두어, 장애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사전수강신청제도나 학습도우미제도를 비롯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자에게 사전 메일 보내기, 쉼터 제공, 취업 상담 등도 지원한다. 우리신문이 만나본 장애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학습도우미제도'와 '사전수강신청제도'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체장애 1급인 서울캠퍼스의 B 학생은 "학습도우미 덕분에 도서관에서 책을 편하게 빌리는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 쾌적하고, 또 사전수강신청제도 덕분에 '초치기'에 대한 부담감 없이 원하는 강의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장애학생들, 학습도우미제도 등 학교지원에 대체로 '만족'

하지만 '평가'로 인해 개선되는 모든 영역이 그렇듯, 장애학생의 학습권이라는 부분 역시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이라는 사실이 곧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신문이 우리학교의 장애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건물 시설의 미비점' 문제와 '교수·비장애학생 등과의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이 그것이다.

건물 시설의 미비점' 문제는 가장 많은 학생이 토로한 불만사항이었다. 건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이 같은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시스템적 문제가 겹쳐 학생의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직접적인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

지체장애 1급인 서울캠퍼스의 C 학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 했다.

"듣고 싶었던 실습 교양수업이 네오르네상스관 지하에 위치한 강의실에 배정돼있었어요. 그 곳(네오르네상스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는 아예 수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학교 측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의실 변경을 문의해보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래서 수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듣고 싶었는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듣지 못하다니 참 아쉬웠죠."

하지만 '평가'로 인해 개선되는 모든 영역이 그렇듯, 장애학생의 학습권이라는 부분 역시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이라는 사실이 곧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의 미비는 그들의 학습권을 크게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C 학생의 경우처럼 단지 한 과목의 수강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다. 가령 우리학교 장애인 특별전형을 한 번 살펴보자. 우리학교에서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학과는 서울캠퍼스의 5개 학과(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영학부, 회계세무학과, Hospitality 경영학부), 국제캠퍼스의 5개 학과(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뿐이다. 전체 학과 수에 비해 굉장히 한정적인 숫자다. 입학처 측은 특별 전형이 몇몇 단과대학에만 열려있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 지원 기반시설의 유무'를 언급한다. 특별전형에 포함되지 않는 단과대학 건물에는 장애인 지원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입학해도 제대로 관리받을 수 없기에 관리가 가능한 단과대학 위주로 한정적인 모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 해에 각 2명 씩 총 20명의 장애학생만이 특별전형을 통해 우리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시설의 미비는 비단 장애학생의 학습편의성 및 생활편의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학습 받을 수 기회'를 박탈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한된 장애특별전형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 박탈요소로 작용하기도

물론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SPACE21이라는 사업을 이미 진행하면서, 장기적으

2016학년도 전기 체육대학원 석 · 박사 신 · 편입학 모집

●모집전공

가. 신입학

구분	학 과	모집과정 석사	학 과	모집과정 박사
전공	스포츠의 · 과학	20명	스포츠의 · 과학	20명
	태권도 · 골프		태권도 · 골프	
	스포츠커뮤니케이션융합	15명	스포츠산업 · 경영	

나. 편입학

구분	학 과	모집정원 석사과정	학 과	모집정원 박사과정
전공	스포츠의 · 과학	70명	스포츠의 · 과학	1명
	태권도 · 골프		스포츠산업 · 경영	
			태권도 · 골프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원서 교부	2015.10.19(월) ~ 11.06(금)	본교 체육대학원 홈페이지 및 체육대학원 행정실(204호)
원서 접수	2015.10.26(월) ~ 11.06(금) 17:00까지	체육대학관 내 체육대학원 행정실(204호)
면접/ 구술전형일시	2015.11.21(토) 10:00이후	체육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합격자 발표	2015.12.07(월) ~ 예정	체육대학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장학제도

장학명	장학금액	지급기준
모범장학	5% – 전액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조교장학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학사조교 및 연구조교로 소속부서의 발령 받은 자
동문장학	수업료 13%	본교 동문인 자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융합장학	30% – 70%	스포츠커뮤니케이션 융합 전공자
목련장학	5% – 전액	가계가 곤란하며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전형 안내	2015.10.12.(월) ~ 11.13.(금)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m.khu.ac.kr
원서 접수	2015.10.19.(월) ~ 11.13.(금)	우편(방문)접수, 이메일접수
서류 제출	2015.10.19.(월) ~ 11.13.(금)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	동서의학대학원 행정실 (구 국제경영대학관 203호)
전형 일시	2015.11.21.(토) 10:00	국제캠퍼스(수원) 지정장소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발표	2015.11.26.(목) 16:00 예정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m.khu.ac.kr
예치금 등록	2015.11.30.(월) ~ 12.04.(금)	하나은행 전국지점(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합격자 등록	2016.02.01.(월) ~	확정 일자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 모집학과 및 과정

모집학과(전공)		학 위 명	모 집 과 정 석 사 신입	석 사 편입	박 사 신입	박 사 편입
노인학과	노화의과학전공	의과학 석 · 박사	O	X	O	X
	노년학전공	노년학 석 · 박사	O	X	O	X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한의학/의학 석 · 박사	O	O	O	O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 석 · 박사	O	X	O	X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	한의학 석 · 박사	O	O	O	O
의학영양학과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 석 · 박사	O	O	O	O
	임상영양학전공					

※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지원자의 학문분야는 의 · 약학 및 생명과학분야 전공자에 한함.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2016 전기 국제대학원 장학생 모집

- **모집분야** :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 **지원자격** : 석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15년 10월 12일(월) ~ 11월 4일(수)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 2015년 11월 7일(토) 오후 12시 30분
  해외 거주자 인터뷰 : 개별안내
- **입시설명회** : 2015년 10월 26일(월) 19시 30분, 국제학관 103호
- **합격자발표** : 2015년 11월 중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평균, 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추천서 2인 각 1부씩 (국문가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반명함판 사진 1매 (3cm*4cm)
  · 전형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금계좌: 하나은행 906-910002-76604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국문/영문 번역 공증서(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원서접수**
  – E-mail 접수 : gsp@khu.ac.kr
  – 우편접수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재중' 게재 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중심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가야할 때

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SPACE21건설사업단에서 말하듯, 현재는 법규상 장애인 시설을 포함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환경이다. 때문에 SPACE21사업이 진척될수록 우리학교의 장애학생 지원 기반시설을 갖춘 건물들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학교는 타 대 대비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비장애학생 등과의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 역시 복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불편사항이다. 이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건물 시설의 미비점' 문제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와 구성원 일반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교육학적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시행된 '교육기본법'은 종전까지 사용되던 '교육권'이라는 용어를 '학습권'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즉, 종래의 교육법은 교육의 주체를 교육자로 보았기에 교육권을 강조했다면,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주체를 피교육자로 보고 '학습할 권리'인 학습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교육 패러다임이 1998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교육공여자식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학교를 포함한 한국 대학은, 적어도 장애학생의 학습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적극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영재 및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손승현 교수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설 부문에서는 거의 최우수 등급을 받거나 좋은 등급을 받지만, 교수학습 영역의 평가점수는 여전히 시설 여건에 비해 열악한 추세"라고 지적한다.

먼저 '교수자와 장애학생간의 관계'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이 수강할 과목의 교수자에게 사전에 미리 장애학생 배려를 위한 학습 가이드북과 장애학생 지원 사례집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한다. 교수자들이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과 좀 더 동등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권고하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일부 장애학생들은 이 점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정 장애와 상황에 맞는 탄력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 3급인 서울캠퍼스의 D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교수님께서 가이드북에 나온 지침들을 수업에 반영하지 않으셔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육성은 들리지만 마이크나 기계소리 같은 경우는 소리가 번져 잘 들리지 않는데도, 교수님께서 자꾸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찾아가서 내 상황을 직접 말씀드리기도 꺼림칙해서, 상당히 난감했죠."

시각장애 4급인 서울캠퍼스의 E 학생은 "앞자리에 앉아야 그나마 보이는데 지정좌석제를 하는 교수님이 나를 뒷자리에 배정해주셨다"며 아쉬움을 드러낸다. 한 학기동안 보이지 않는 판서를 보기 위해 많이 고생했다는 것이다.

"자율좌석제를 통해 학생들이 앞자리부터 앉아서 자리가 없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지정좌석제임에도 불구하고 뒷자리로 배정해주시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수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는 이런 목소리들과는 반대로, 교수자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최소한의 조치만 취해주면서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각장애 5급인 서울캠퍼스의 F 학생은 "조별과제에서 조를 짤 때 나만 개인과제로 돌려주셨다"며 '시력이 조금 나쁠 뿐, 비장애학생들처럼 조별과제를 수행하고 싶었는데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셔서 당황스러웠다'라고 말한다. "배려인 건 알겠지만 내가 요청하는 선에서만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마다 각자가 원하는 관계형성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대하는 명확한 '매뉴얼'이란 존재하기 힘들다.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과거의 공여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에서는 교육자의 시선에 맞게 획일화 된 가이드를 배포하는 것이 대처방식일 수 있었지만, 피교육자가 능동적으로 학습권을 추구하는 오늘날에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북 배포 같은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각각의 장애학생의 요청사항을 들어보고 반영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사이의 문제'도 이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장애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이해가 비장애학생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장애학생은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장애학생들이 예기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시민교육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진진주 직원은 "시민교육 때문에 학기마다 연락이 10번씩은 오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종종 장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 연락처를 얻으러 오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제가 끝나면 관심을 거두면 장애학생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교수자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강의를 하거나 동영상을 만들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정도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교수자 개인마다 인식수준이나 태도의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인 매뉴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교수자에 대한 교육'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곳은 서강대학교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장애학생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용 자료를 교수용, 비장애학생용, 그리고 장애학생용으로 나누어 편람할 수 있게 올려놓았다. 또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하는 세미나를 시행해 서로간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이 마주하게 될 사람들의 인식 전반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출판문화원 오디오북 제작 계획 후마, 인가탐·우사세 대상

우리학교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 아래 장애학생의 학습권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례로는 출판문화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출판문화원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공통 교재인 〈인간의 가치탐색〉(인가탐)과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를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오디오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오디오 북은 전문 성우가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더 명확히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는 몇몇 시각장애학생들의 요청으로 인해 시작된 작업이다. 학생의 요청 이후로 저자와의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을 기획해 전문 성우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장애학생들을 일률적으로 라벨링해서 매뉴얼화 된 대처에 나서는 것 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요구에 따라 적확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이뤄지는 것이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출판문화원의 이런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교재들은 이르면 2016년 봄쯤 인가탐 교재의 개정이 완료되고 나면, 여러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분	학과	전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분	장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2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2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수업료 3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2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5. 10. 19(월) ~ 11. 6(금)
· 전 형 일 : 2015. 11. 7(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특별전형 – 전형료 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961-0905 ·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전액장학 신입생 모집(주간)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전원 장학금(학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급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전액장학)
● 모집전공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대안정치거버넌스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원서접수기간 : 2015년 11월 9일(월) ~ 11월 18일(수)
● 입시 일정

일 자	전형 내용
11월 18일(수)(우편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	서류마감
11월 25일(수)	필기시험
11월 30일(월)	1차 면접
12월 2일(수)	2차 면접
12월 11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 의 처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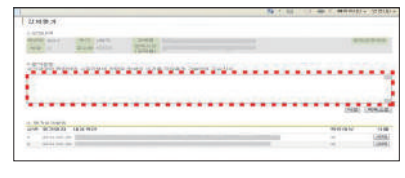
2015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됨.

●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5. 10. 05(월) 10:00 ~ 11. 27(금) 17:00 (8주)
●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강의평가 → 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 입력화면 설명
가. 1번 '강좌내역' : 선택한 강좌내역을 확인
나. 2번 '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다. 3번 '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파악 가능



● 평가내역 수정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나. 평가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다. 팝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창닫기'를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 참조 및 유의사항
가. 수시평가는 1강좌당 주 2회까지(총 16회) 의견개진이 가능합니다.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기획

▶1면에서 이어짐

우리학교는 교육여건 부문에서 23위를 기록해 이번 종합 순위 하락에 가장 큰 요인이 됐다. 타 대학의 경우 이 부문에서 고려대 8위, 한양대 7위, 연세대 2위, 성균관대 3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세부 항목인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에서는 36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26위를 였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의 경우 재학생 수가 많은 대학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연세대 19위, 고려대 31위, 성균관대는 29위를 기록해 우리학교보다는 높았다.

해당 지표들은 전체 인원수 대비 수혜율을 따지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종합대학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학교는 2015년 정보공시된 대학알리미 기준 재학생 수가 25,259명으로 주요 사립대학 중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약세인 점은 장학금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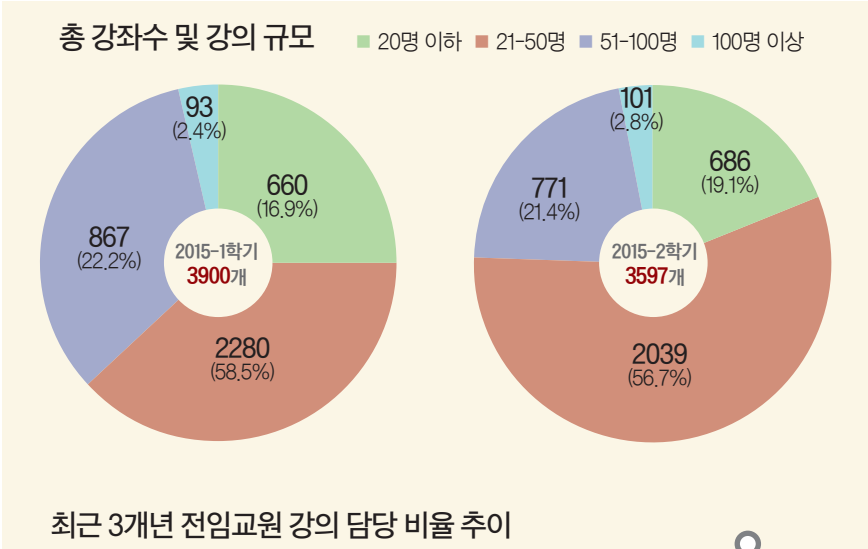
전임교원 강의비율·강의규모 모두 40위 안에 못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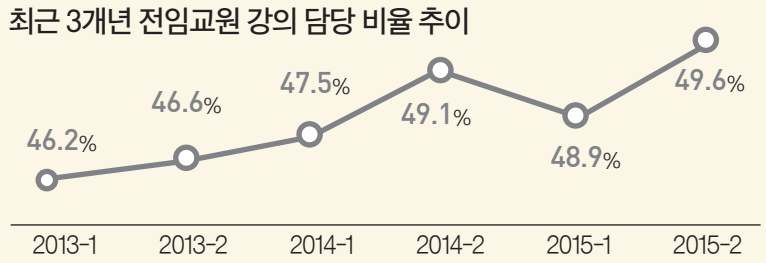
교수 확보율은 지난해까지 1위를 유지하다가 11위까지 떨어졌다. 미래정책원 신상협(국제학) 원장은 "2007년 700여 명에서 2012년 1,400여 명의 교수 규모로 키우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며 "내부에서 교수 채용에 너무 많은 재원을 쏟는다는 문제제기도 있어, 이후 교수 규모 수준이 답보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신설된 지표에서는 우리신문이 꾸준히 제기해온 교육의 질 저하와 연관된 지표들이 낮은점수를 기록했다. 신설 지표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40위 밖)', '강의 규모(40위 밖)', '외부 경력 교원 비율(40위 밖)', '기숙사 수용률(27위)'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이 직접 체감하는 강의 여건 지표인 '대형 강의' 부문은 40위 밖이다. 대형 강의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기 때문에 밀도 있는 수업이 어렵고 그만큼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생들의 불만과 함께, 교·강사 사이에서도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측에서 이번 학기부터 대형강의 수를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130명 기준의 강의를 축소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세부 지표처럼 '20인 이하 강의 수, 21~50인 강의 수, 51~100인 강의 수, 101~200인 강의 수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닌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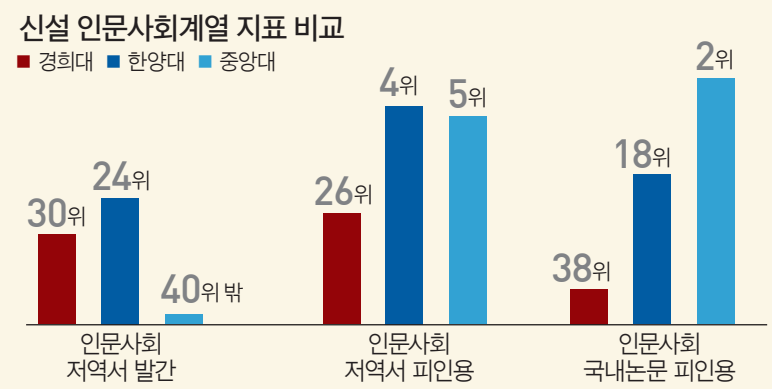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와 전체 개설 강의 수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경쟁대학 대비 전임교원 관련 지표

구분	2014년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2014년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2014년 전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수	2014년 전임교원 1인당 국외논문수	2015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재학생기준)	2015년 전임교원수
경희대	646만원	8984만원	0.56	0.64	25.4명	3.375명
고려대	999만원	1억 5146만원	0.47	0.87	23.6명	4,324명
성균관대	2126만원	1억 6275만원	0.46	0.93	21.3명	2,348명
연세대	839만원	1억 5380만원	0.46	0.85	22.4명	4,195명
중앙대	1,059만원	7591만원	0.70	0.64	27.9명	1.924명
한양대	1,132만원	1억 3580만원	0.64	0.78	25.6명	3,372명



교수당 자체연구비 30위로 추락 인문사회 관련지표 대체로 약세

우리학교는 연간 12시간을 책임강의시수로 정하고 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책임강의시수는 15시간, 중앙대는 트랙별로 12~15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가 적다는 것은 비전임 교원 증가와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수 측은 책임강의시수가 적으면 연구시간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수 연구 성과가 그에 비례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딜레마다. 신 원장은 "우리학교 학생 숫자는 매우 많으나 전임교원 숫자는 제한돼있다"며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를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올리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교수연구' 부문은 9위를 기록했지만 세부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차 악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신설한 인문사회계열 관련 지표에서 우리학교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새로 추가된 '인문사회 저역서 발간', '인문사회 저역서 피인용', '인문사회 국내논문 피인용' 항목에서 각각 30위, 26위, 38위를 기록했다. 한양대가 각각 24위, 4위, 18위에 오른 것과는 많은 차이다. 이는 구성원이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재정적으로 연구를 뒷받침하는 항목인 '계열 평균 교수 당 자체 연구비'가 30위를 기록한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해당 지표는 2013년 5위에서 2014년 15위로 롤러코스터같은 하락을 경험한 바 있는데 올해는 15계단 추가 하락했다. 재정 악화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교수연구' 부문에서 가장 큰 가중치인 30점을 두고 있는 '국제학술지 논문 당 피인용' 항목도 지난해 9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산학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낮게 나왔다. '과학기술교수 당 산학협력 수익' 항목이 36위에 그쳤다. 종합평가 순위에서 우리학교보다 높은 순위를 보인 한양대 서울캠퍼스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각각 6위와 18위를 기록했다.

신설된 부문인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졸업생 창업 활동', '창업교육 비율' 항목은 각각 25위와 40위 밖을 기록했다. 이번 대학평가에서는 취업률과 더불어 대학의 창업 지원 노력에도 큰 배점을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학교 '창업지원센터'의 예산이 부족하고 지원이 열악하다는 점은 학생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그 같은 결과는 지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학생 사회진출 관련 지표도 약세 취업·창업 프로그램 강화 해야

기존 지표였던 '순수취업률', '유지취업률'은 28위와 17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원장은 "대학평가 지표가 변화하면서 창업관련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우리학교가 이 부분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졸업생의 취업·창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체 경험이 있는 교수를 초빙하거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커리큘럼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취업·창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동아일보·채널A와 딜로이트 컨설팅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학의 취업 지원 역량을 파악하는 '2015년 청년드림대학'에서 우리학교는 52개 대학을 3등급(최우수청년드림대학·우수청년드림대학·청년드림대학)으로 나눈 결과 청년드림대학에 선정됐다.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는 최우수청년드림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평판도 부문에서는 특성화와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지표가 눈에 띈다. 특성화의 경우 대학을 떠올렸을 때 확실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면 성균관대 1위, 한양대 7위, 서강대 9위, 중앙대 12위 등에 한참 뒤쳐진 19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대학은 경희대 하면 떠올릴 확실한 이미지 전략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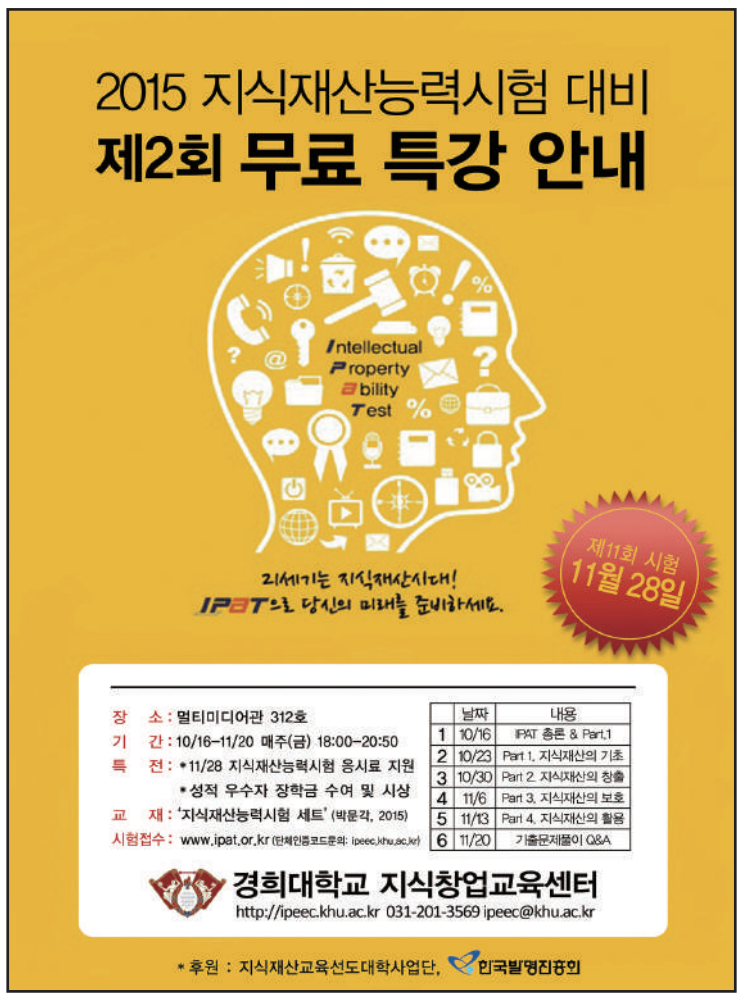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지표에서도 우리대학은 22위를 보이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나 GSC 등을 통해 활발한 사회기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대학으로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다. '국가 및 사회 전반에 기여가 큰 대학' 순위에서도 16위로 나타나 우리대학이 매년 펼치고 있는 관련 활동이나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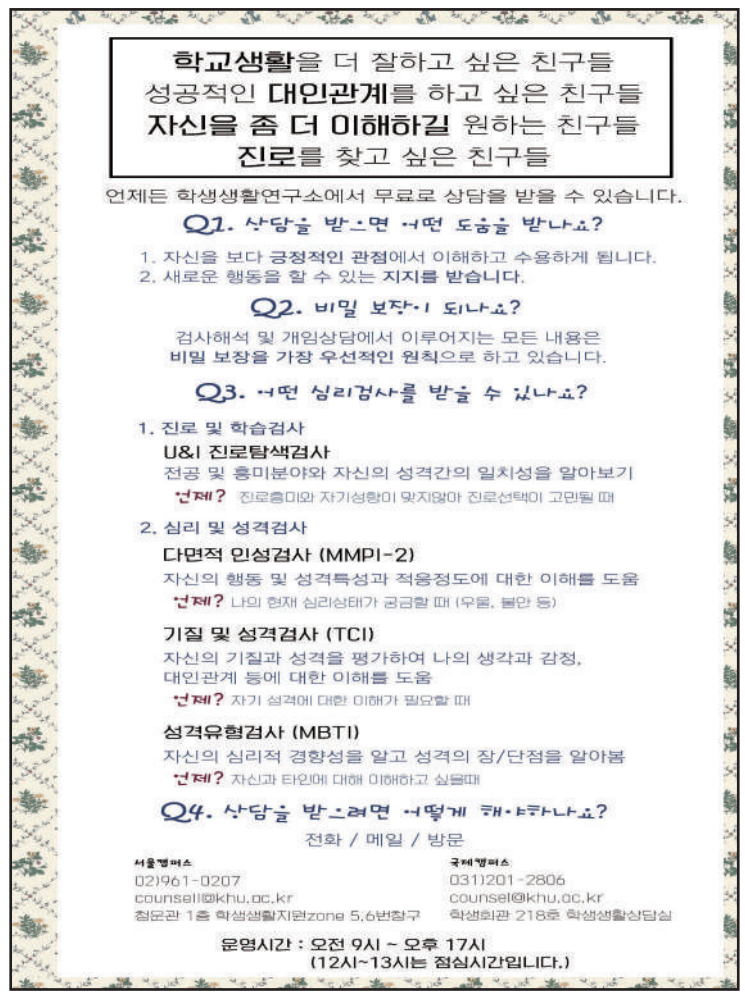
구성원 요구했던 '교육여건' 개선 최우선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편 조인원 총장은 지난달 27일 교무위원회에서 '획일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대학평가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며 이번 결과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이같은 결과의 원인을 대학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미진했던 것에서 찾기도 했다. 그 사례로 지난해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 변경이 집중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했던 것을 거론하며 전체 교무위원 모두가 깊은 책임의식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신문은 해마다 각종 대학평가가 있을 때마다 '순위 등락에 따라 대학의 정책을 정하지 말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학교 구성원이 항상 대학 측에 요구해왔던 '교육 여건', '교육 인프라' 개선이 낮은 평가결과라는 '현실'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지금 우리대학이 가장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교육여건이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문 역시 교육여건일 것이다.

문제는 대학이 해당부문에 투자를 하는 방향과 철학이다. 단순히 떨어진 지표를 몇 점 끌어올려 순위 몇 개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오랜기간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교육환경을 긴 안목에서 만들어진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개선해갈 것인가는 그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칼럼

역사,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재 진행형 학문

특별기고 - 역사의 의미

서상훈
문화평론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는 말은 역사학도라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E.H.카(Carr)의 유명한 말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명 저서에 등장하는 이 말은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역사' 관련 사안들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총리가 '위안부 망언'을 하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제 전쟁이 가능해진 일본을 바라본다. 이에 대해 '진정한 한일관계를 위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과 첨예한 대립 상태에 놓여 있다.

역사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사속 정의로움에 열광하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처벌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를 모두가 바라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후손이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회, 하지만 독립운동가와 그 자손들은 폐휴지를 줍고 있는 사회라면 우리는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는 반문을 품게 된다. 그 반문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암살〉 같은 영화를 통해 친일파를 처단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사극과 역사소재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영화에 드리우는 역사 속 인물들의 열정과 정의로움 덕분일 것이다.

역사란 인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 역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시대를 통찰해내는 안목과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의 인생이 만드는 역사 이야기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역사해석에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역사 그 자체는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어떤 정해진 형태가 없으며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없다. 예컨대, 역사 속의 모든 인물은 다양한 면모를 함께 지닌다. 가령 고구려의 유명한 왕인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은 보통 '업적'만으로 기억되지만 실은 둘 모두 때론 열정적이면서도 때론 차갑도록 냉정한 양면성을 겸비한 군주였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인 역사는 인생을 반영하기도 한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보자. 로마의 위대한 천재인 그는 재능도 뛰어났고 통찰력과 자제심, 평정심 등을 고루 겸비한 천재였다. 그러나 종국엔 그가 믿었던 측근 부르투스에게 암살당하고 만다. 누가 이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리라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리고 역사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롤 모델로서, 때로는 반면교사로서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역사 속에는 저마다 다양한 위치에서 저마다 다양한 목적을 향해 저마다 다양한 기질과 성격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무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라 화랑세기에 나오는 미실이나 고려 말의 이인임은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삶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깃거리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듯 생물처럼 꿈틀대는 '역사'는 한 가지의 지향점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시대를 관통하는 그 지향점은 바로 '사람'이다. 역사 속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중, 특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이러한 리더일 것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지니고 그것을 제시해줄 수 있는 리더 말이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국민이 바라는 우리시대 리더

역사란 의미 있는 하나의 사실이다. 또한 '사람이라는 소중한 존재 안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바로 역사일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정의와 열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재 진행형 학문이다.

참여마당

정현진
영어학부 2015

역사교과서 국정화, 친일·독재 미화되지 말란 법 있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5.16을 '혁명'이라고 배웠다. 시대가 흘러 기존 교과서가 지나치게 반공 이데올로기와 정권을 홍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3년,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화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교과서 발행 체제가 완전히 검정으로 전환됐다. 나는 5.16을 '군사 정변'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체제로 바꾸려는 것 일까.

일부에선 현행 검정 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좌편향됐다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2012년 교학사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개 출판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채택률 2위의 비상교육은 전후 미군의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는 포고문을 실었다. 반면 소련에 대해서는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는 포고문을 실어 소련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비상교육은 교육부의 지적을 받은 후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설명을 덧붙인 후 교과서를 출판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좌편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일한 방법인지, 또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국정화의 이유가 역사적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검정 교과서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집필 기준을 세우고 검·인정 과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국정화가 대안은 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한 종의 교과서로는 더 큰 편향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디 역사는 역사를 바라보는 학자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에 완전한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복수 정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 기술에만 치우쳤던 제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국정교과서는 오히려 심화 탐구와 토론을 제대로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였다. 참된 교육은 뒷전이 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다.

역사 왜곡 가능성 역시 문제다.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아직 형체도 없는 교과서를 친일 교과서라고 낙인찍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기형아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현 대통령과 부친의 친일행적에 대해 논란이 있는 여당 대표가 주도하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검정 교과서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편향성을 바로잡아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1면에서 이어짐

황금률은 가장 쉽게 동등성 혹은 공정성의 원리로 설명되기도 한다. 혹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상상력의 원리로 설명되기도 한다. 또한 황금률은 상호 호혜성의 원리로 설명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호혜성은 반드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식의 조건부는 아니다.

그것은 퍼트넘의 말대로 "네게 그 어떤 특정한 보답을 받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이걸 해주겠다. 어느 누군가(네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게 무언가 해줄 것이라고 자신있게 예측하면서"하는 식의 포괄적 호혜성이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타인에게 한 행동이 결국에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금률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작 황금률은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할 뿐, 나의 대접을 받을 타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면'이라는 조건도 붙이지 않고 있다.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황금률의 이 지나친 요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아마도 황금률을 완성하는 마지막 원리는 '사랑' 일 것이다.

그러므로 황금률은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무조건적인 의무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실 칸트에 따르면 황금률은 지나친 주관성에 의거하고 있음으로 보편법칙이 될 수 없다. '너'의 욕망이 저마다 다른 데,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황금률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린다.

하지만 황금률에는 이런 모든 원리들, 즉 공정성과 공감, 호혜성, 도덕적 의무로도 설명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남에 해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황금률의 이 지나친 요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아마도 황금률을 완성하는 마지막 원리는 '사랑'일 것이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문화

‘편해서’ 입는 과잠, 학벌 서열화 부추긴다는 비판도

〈학과 야구잠바〉

과잠을 입는 이유

최병헌 기자 chbh1027@khu.ac.kr

#. 캠퍼스를 수놓은 단풍을 즐기기도 전에, 쌀쌀해진 날씨로 외투를 여미게 되는 계절이다. 이때쯤이면 ‘과잠’을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학과 야구잠바’(과잠)를 입고 등굣길에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겨울을 읽을 수 있다. 어느새 대학생의 상징이 된 과잠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과잠을 입는 이유와 과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의미들을 짚어봤다.

과잠은 학과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입는 단체복의 일종이다. 타 대학, 타 학과와의 차별성을 위해 과잠 곳곳에 학교 이름과 학과, 학교 마크, 학번 등을 새기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과잠은 2000년대 초반 몇몇 학과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학과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생회 등 소규모로 단체복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과잠은 이젠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진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한국의 동질감 문화의 대표 학과·동아리 이미지도 상징

학생들이 과잠을 입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속감’이다. 통일된 디자인의 과잠은 새내기 배움터나 MT 등 주요 행사 때마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나타내는 의복인 만큼 과잠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학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과 내에서 자체 제작한 로고를 사용하기도 하고, 학과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디자인을 그대로 물려받기도 하며, 공모를 받아 투표를 통해 디자인을 스스로 결정하기도 한다. 최상원(경영학 2015) 양은 “투표와 회의를 통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함께 디자인을 정한 과잠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간다”며 “같은 과잠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 동질감이 느껴지고, 가끔 다른 학과의 예쁜 과잠을 보면 그 학과 이미지가 과잠으로 남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감’은 옷을 입은 착용자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도 하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본인의 소속을 드러냄으로써 활동범위가 좁아지는 ‘심리적 거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인문지리학회 ‘지인’이 우리학교 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한 ‘과잠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눈여겨 볼 만하다. 통계에 따르면 통학생은 ▲번화가(65%), ▲서울 외 타 지역(55%), ▲비교적 입시 결과가 높은 타 학교(53%) 순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다. 자취생의 경우 ▲비교적 입시 결과가 높은 타 학교(52%), ▲번화가(47%), ▲서울 외 타 지역(36%) 순이었다. 과잠은 각 대학별 모임의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만이 반영된 공간보다 다른 문화와 만나는 공간인 번화가, 타 학교의 교내, 타 지역에서 과잠 입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편의성’ 또한 과잠에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이유다. 과잠은 이른바 ‘야구잠바’ 형태라서 대부분 옷에 잘 어울리는 데다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을 때 가볍게 입기 좋다는 게 학생들의 의견이다. 정현진(영어학 2015) 양은 “따뜻하고 편해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자주 입게 된다”며 “크게 유행을 타지 않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실용적으로 입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학가의 과잠문화에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칫 개인들의 몰개성성을 불러일으키고 무의식 속에서 집단논리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희제(사회학) 교수는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 학생들은 이러한 한국대학의 독특한 과잠문화에 놀라기도 한다”며 “단체로 획일화된 과잠을 입는 것은 의복의 기능 중 하나인 ‘개성 표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분석했다. 한 학생은 “과잠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친구들이 대부분 과잠을 구매하니까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라며 “과잠을 구매하지 않으면 학과에 애정이 없다고 눈치를 주는 분위기도 한 몫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속감 높이기도 하지만 서열화 부추기기도 해

더불어 과잠문화는 학벌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이른바 ‘서열 패션’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구성원 간의 소속감을 위한 과잠이 동시에 학벌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다른 학교 과잠과 마주치면 ‘입시 결과’에 따라 매겨진 학교 순위로 한쪽은 우월감을 다른 쪽은 열등감을 느끼는 일도 부지기수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입결’이 높은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의 과잠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사뭇 다른 듯하다. B 학생은 “야구잠바를 볼 때면 습관처럼 뒤판의 학교와 학과명이나 팔뚝의 학교 마크를 살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명문대학이라 생각하는 학교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감탄하기도 하지만, 지방 사립대학 과잠을 입은 학생이 지나가자 아주머니들이 하는 뒷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과잠이 학벌을 나타내는 수단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박 교수는 “대학가 안에서 과잠이 문제시 된다는 건, 젊은 대학생 스스로가 서열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열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의 시선들을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은 사회의 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청년들이 벌써부터 사회의 선입견을 스스로 내면화시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제 대학생들에게 과잠은 쌀쌀한 날씨에 가볍게 걸치는 단순한 외투로써의 의미를 넘어선 듯 하다. 일각에서는 ‘과잠을 입는 행위’가 우월감과 패배의식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학벌 서열화의 부산물 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계를 조장하는 일종의 서열 행위에 대해 우리의 인식이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재학생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종류	계열	대학	면제기준					면제내용
			TOEFL		TEPS	TOEIC	G-TELP	
			CBT	IBT				
공인영어시험능력자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 (Level2) 이상	과목면제 ※ 실시일 기준 현재 최근 2년 이내 점수에 한함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 (Level2) 이상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응용화학과)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 (Level2) 이상	
	예체능 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 (Level3) 이상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면제종류	자격	면제내용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B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 (영어권)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인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교류센터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권 학점 교류자/어학 연수자로 선발된 자, 외국 영어기관의 과정을 수료하고 상급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 인정 가능한 영어 어학연수/과정(외국대학, 대학 부설 및 공인 교육기관 Program)에서 48시간(3시간X16주) 이상 이수한 후 고급 성적을 취득한 자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평생교육원 DEEP, 국제교육원 LEAP, REACH 집중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율 80% 이상, 성적상급수준으로 수료한 자.	과목면제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 공학인증(ABEEK)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제1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1, 2단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 1 단계	제 2 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행정실(T:03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표] *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계	내용	평가 방법	학점	비고
1단계	독후감 평가 (권장도서 중 3편을 읽고 독후감 제출)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 / F로 부여	1단계 합격시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교재 내용 이해도 평가 / 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		

라. 전산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신청기간 :** 2015.12.01(화) ~ 2015.12.11(금) 17:00 까지
-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5-2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201-3401~5)
-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증빙서류 원본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제41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 **강 연 :** 진화심리학자 전중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주 제 :** “진화, 인간 본성, 그리고 삶의 의미”
- **일 시 :** 2015. 11. 18. (수) 오후 3시
-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강사 주요 저서**
  – 오래된 연장통 /전중환 지음, 사이언스북스, 2010
  – 욕망의 진화 /데이비드 버스 지음, 전중환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7

* 강연 후 추첨을 통한 도서 증정 행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인간의 마음도 진화의 산물이라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수백만년 전 수렵-채집생활을 했던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 장착된 여러 심리적 도구들의 묶음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일상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삶의 의미나 목표 같은 의문들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본다.”
— 강연 요약

* 문의: 중앙도서관 열람과 T.02-961-0074,0078 khsd3015@khu.ac.kr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